

우리 연금제도, 아·태 우수사례로

국민연금 ISSA 아·태지역 포럼 '최우수상' 수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2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회보장 포럼에서 지역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해당 포럼은 사회보장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주관했으며, 선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19개국 30개 회원기관에서 제출된 총 168개의 사례 중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수상은 △터치스크린 활용 디지털 상담 및 국민연금 전자증서 발급 서비스 △기관 간 온라인 정보 연계를 통한 3-kss 민원 서비스 △기초연금 탈락자를 5년간 관리하는 수급희망이력 관리제도 3개의 최우수상을 비롯해 우수상 3개, 입선 1개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최우수상 수상작 중 하나인 '기관 간 온라인 정보연계를 통한 3-kss 민원서비스' 사례를 포럼에서 발표하고,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기관들과 공유 및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한편 공단은 2012년 서울에서 진행된 포럼을 시작으로, 3년마다 개최되는 ISSA 아·태 지역 사회보장포럼에 꾸준히 사례들을 제출해 국민연금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타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국제사회에서 공단이 '글로벌 리더 연금 기관'임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과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지난 23일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황태원 차장(왼쪽)과 박숙현 과장(가운데)이 온라인을 통해 최우수상에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 환영”

전북상협 “지역경제에 따뜻한 봄소식”

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방섭)는 24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소식에 상공인들은 도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24일 협의회에 따르면 상공인들은 성명을 통해 전북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멈춘 지난 6년의 시간 동안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아울러 전북도민들은 그 아픔을 혹독한 시련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가동을 재개하고 물량과 공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

을 담고 있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지역경제에 따뜻한 봄소식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윤방섭 회장은 “이번 협약식이 있기까지 끊임없는 노력과 공조를 통해 값진 성과를 일궈낸 전라북도과 군산시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의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내년 재가동까지 많은 준비절차가 남은 만큼 조속한 추진과 충분한 예산지원, 인력충원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자체, 업체 등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대희기자

고향사랑기부자 대상 세제혜택 · 농축산물로 답례

전북농협,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홍보 간담회 진행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농축산물 중심으로 운영되기 위한 농정협의회의 간담회를 24일 진행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 및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지 등에 사용하며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일정액을 농축산물 등으로 답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북농협은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제공 이해활동 전개”를 위해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뿐만 아니라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농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이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입취지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



24일 전북농협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정협의회의 간담회를 진행한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들과 협력해 지역 농축산물 중심으로 답례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홈페이지 내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팸플릿 게시 등을

통해 도입취지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북도의회도 기부제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입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대희 기자

‘전북특구 X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데모데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조용철 이하 전북특구본부)는 24일 서울 팀스타온 S2에서 전북특구 X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구 내 유망 창업기업 중 Series B 또는 C의 투자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Scale-up에 방점을 두고 투자유치 연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데모데이 행사에는 ‘전북특구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통해 발굴·보육된 ▲휴렛(대표 오홍근), ▲씨비에이치(대표 방사), ▲에이네비메타리솔루션(대표 신상기), ▲에코엔텍(대표 김준수), ▲플라스바이오(대표 박성철), ▲코슬러스(대표 김상현), ▲어의방(대표 이정원) 등 농생명 융복합소재부품 분야 우수기업 7개사가 참여했다.

투자심사역으로 팀스운영사인 마그나인베스트먼트를 비롯 7개의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가 참석해 기업의 IR 피칭을 검토했고, 이어서 일대일 상담을 통해 투자검토 및 자문을 진행했다. /유호상 기자

연구데이터, 사용자들이 활용하기 쉽게

농진청, 디지털 연구환경 조성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 경쟁력으로 떠오른 연구데이터를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하고 개방하는 디지털 연구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의 농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매년 약 1,700여 개의 연구과제 수행되고, 이 과정에서 품종, 특형, 논문 영농기술 등 연구 성과물과 연구데이터가 대량 생산된다. 이 가운데 토양·유전체, 농작물 생육, 농식품 성분 정보 등 공개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연구데이터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내외에 제공되고 있다. 반면 전문연구실에서 생산된 기초 연구데이터는 연구자 간 공유나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진청은 지난해 3월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연구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기술 데이

터 생태계 구축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개의 분야별 디지털 시범연구실을 시작으로 연구기관별 디지털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시작됐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립수목원과에서는 생산·저장·가공·유통·소비 전 분야의 연구데이터 융복합을 위해 실험과정 설계부터 데이터 통합관리, 참여 연구원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 활용을 모델화한 디지털랩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효율적인 데이터 생산, 관리를 위해 그동안 수작업으로 해오던 데이터 수집, 저장과정을 큐아르(QR)코드 및 자체 개발한 수량인식장치를 활용하고 수행에 인력은 1/3배 감소, 데이터 처리 속도는 3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진청은 농업 R&D 데이터 전주기 관리시스템을 지난해 구축했고,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230여 전문연구실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전주기 데이터 관리시스템은 연구계획 설계 및 분석자원을 위한 디지털랩, 연구과정을 추적 검증할 수 있는 전자연구노트 및 데이터의 관리, 공유, 개방을 위한 리포지터리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연구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메타데이터 표준안 마련 및 품목별 기능별 연구 조사 분석 지침(매뉴얼) 작성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가연구개발과제로부터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DMP)도 도입해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연구데이터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도 연구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국가 과학기술 분야 새로운 데이터 관리시스템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구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한전 남원지사-에코에너지원, 산림바이오매스 발전 협약

한전 남원지사(지사장 박훈하)는 남원시 노암동 소재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에코에너지원(주)과 ‘탄소중립 기여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원지사는 그동안 정전예방을 위해 전량 폐기했던 전지된 수목을 바이오매스 원료 생산 업체에 공급해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여기에 더해 ▲수목전지 폐기물의 처리비용 절감 ▲수목전지 폐기물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탄소중립의 사회적 책임 완수 ▲발전용 바이오매스 연료의 수입대체를 통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훈하 지사장은 “정전예방을 위해 고안산에 근접한 수목을 전지해 폐기처분해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에 활용되고 국가적 시책인



탄소중립에도 기여해 일석이조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 농식품산업 역량 키운다

바이오진흥원, 전북도 지원으로 전문인력양성사업 추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전북 농식품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올해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장실무형 인력양성과정으로 이루어진 이번 사업은 재직자 및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HACCP 팀장교육,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교육, 마케팅 전문가 양성교육 등 집체교육과 기업 수요 중심의 기업 방문 맞춤형 교육 등 기업의 필수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으로 진행된다.

올해 교육프로그램은 온라인 매출이 증가됨에 따라 기업의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사업화 교육과, 전북형 뉴딜정책 및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단계별 특화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한 최근 실정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김동수 원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 강화 등 진흥원이 보유한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교육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현장중심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전북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청 희망자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해 신청서를 진흥원 일자리창출팀(063-210-6585)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대희 기자

성장단계별 창업 사업화 패키지 지원

전북중기청, 순차 모집... 총 3010곳 선발

초기창업, 오늘부터 · 창업도약은 28일부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올해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모집을 시작했다.

24일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벤처투자자 기술창업으로 제2의 창업·벤처붐이 도래한 가운데, 이를 더욱 확산시키고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창업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한다.

이번에 공고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사업별 최대 1~3억 원)은 물론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패키지는 성장단계별로 3개 사업으로 나누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가 있다. 그동안 창업패키지 사업으로 참여기업은 매출과 고용이 높고 성장률도 높은 20~30대 청년은 물론 40~50대 중장년 창업자들까지 전 연령에 걸친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 총 3,010개의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을 선발하고, 추후 상반기에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510개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하반기에 ‘실용실용 창업선도대학’을 통해 80개 초기창업기업을 선발·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예비창업패키지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창업도약패키지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다. /최대희 기자

경진원, 시금형제작지원 참여 희망업체 모집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용, 이하 경진원)은 도내 예비창업자와 제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금형제작의 비용 부담 감소와 안정적인 제품개발을 위한 2022년 시금형제작지원사업 지원업체를 모집한다.

24일 경진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예비창업자와,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이후 양산 단계인 시금형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총 15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고 금형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은 7명,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은 8건으로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의 성장기를 마련해 기여했

다. 대표적 성과 기업인 (주)송백이앤에스는 황당보도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도에 설치하는 보행자 대기선 신호등 개발 사업으로 LED를 시금형 개발을 통해 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주)에스플러스는 지원 사업으로 제작한 스마트 모니터링 마스크 시금형으로 2021-PRR-코리아당면대회 ‘장려상’, 2021 전북투자벤처로드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제품출산 단계에 진입했다.

올해 상반기 시금형제작지원사업은 8업체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신청 방법은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최대희 기자